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오만

Sultanate of Oman

2023년 6월 19일 | 책임조사역(G3) 김미종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0천 km ² (한반도의 1.4배)	인구 463만 명 (2022 ^e)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대외정책 중립, 균형적 외교정책
GDP 1,147억 달러 (2022 ^e)	1인당GDP 24,772달러 (2022 ^e)	통화단위 Omani Rial	환율(U\$기준) 0.39 (2022)

- 아라비아 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오만은 한반도의 1.4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에 북동쪽으로는 오만 만, 동쪽과 남쪽으로는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와 접경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랍 제국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1월 즉위한 하이삼 국왕은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왕족의 공개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고, 즉위 1년 만인 2021년 1월 장남 드히야진을 조기에 왕세자로 책봉하며 권력을 공고히 함.
- 2022년 원유 및 천연가스 국제가격 상승, 재정수입 증가 및 긴축재정 정책 시행 등으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정부채무 조기 상환 등으로 공공부채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하였음. 한편, 에너지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이자 GCC 역내국들 대비 상대적으로 가채연수가 짧아 VISION 2040에 따라 산업다각화 및 '21세기 그린수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 중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4. 3. 28 수교 (북한과는 1992. 5. 25)

주요협정 항공업무협정('87), 문화협정('95),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04),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06), 외교관·관용·특별·공무사증면제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12,765	387,625	350,966	석유화학 합성원료, 열연강판, 승용차 등
수입	2,176,821	3,000,551	5,306,465	천연가스, 원유

해외직접투자 현황(2022년 말 누계) 59건, 802,15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경제성장률	1.3	-1.1	-3.2	2.9	4.3
소비자물가상승률	0.9	0.1	-0.9	1.5	2.8
재정수지/GDP	-6.7	-4.8	-16.1	-3.2	6.3

자료: IMF

2022년 국제유가 상승 및 비에너지 부문 성장 등으로 인한 4.3% 경제성장 추정

- 2022년 오만 경제는 동년 기준 90% 이상(12세 이상)의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였음.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른 OPEC+(OPEC 소속 14개국과 주요 10개 산유국 연합체)의 산유량 쿼터 해제가 석유 및 특경질원유(콘덴세이트) 증산으로 이어지고, 비에너지부문의 동반 성장한 결과 오만 경제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4.3%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오만은 일평균 106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연간 산유량은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음. 다만 2023년에는 유가 수준 지지를 위한 OPEC+ 감산정책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22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며 2030년 중반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중기적으로 소폭의 플러스 경제성장 지속 전망

- 2023~24년에는 산유량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 및 국제수지는 고유가 추세로 인해 중기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10차 5개년 개발계획(Tanwea'a, 2021~2025)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경제구조 다각화, 디지털정부 전환 등에 힘입어 오만 경제는 중기적으로 평균 1%대의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기관별 오만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IMF 1.7%, IHS Markit 1.3%, Fitch 3.4%, EIU 3.2%

- 오만 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인 VISION 2040에 따라 ①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②국영기업의 거버넌스 강화, ③비에너지 산업 부양, ④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⑤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지출과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도입이 민간소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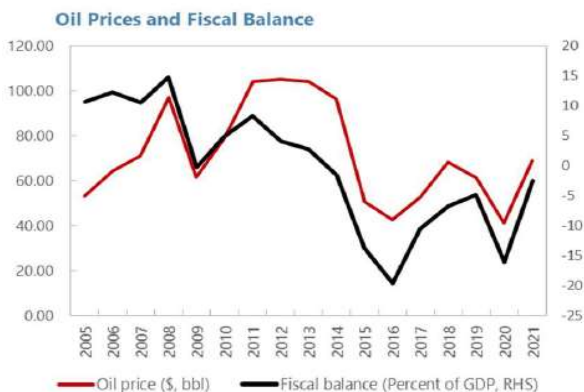
2022년 국내경제 회복세,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 2018~2020년 1% 미만을 유지했던 오만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부가가치세 도입(세율 5%)의 여파로 1.5%를 기록하였음. 이후,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국내경제 회복,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초래된 식료품 국제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2022년 1월 10여년 만에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까지 상승한 뒤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이후 최고치인 2.8%를 기록하였음.
- 공산품 국내수요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소비자물가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으로, 정부는 일부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면제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코자 노력함.

2022년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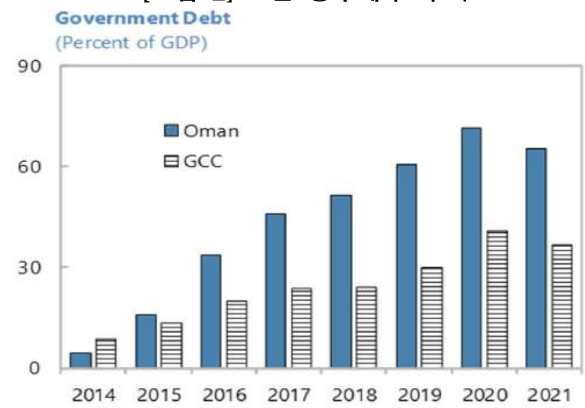
- 오만의 재정수지는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를 지속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여 적자가 GDP 대비 16.1%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및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3%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GDP 대비 62.9%에 달했던 정부채무는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정부채무를 조기 상환한 결과 GDP 대비 43.7% 수준(457억 달러)로 감소하여 정부채무 지속가능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한편, 오만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 등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재정수입의 약 77%(GDP의 1/3 수준)를 석유(52%) 및 가스(25%) 부문이 차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오만은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한 2015~17년에는 GDP 대비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수지가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저유가 장기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수요 급감으로 부족한 재정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여 최근에 정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림 1] 국제유가 및 오만 재정수지 추이



자료: IMF / '서부텍사스유, 브렌트유, 두바이유 평균 유가

[그림 2] 오만 정부채무 추이



자료: IMF

국내경제

2023년 보수적인 유가 전망 하에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규모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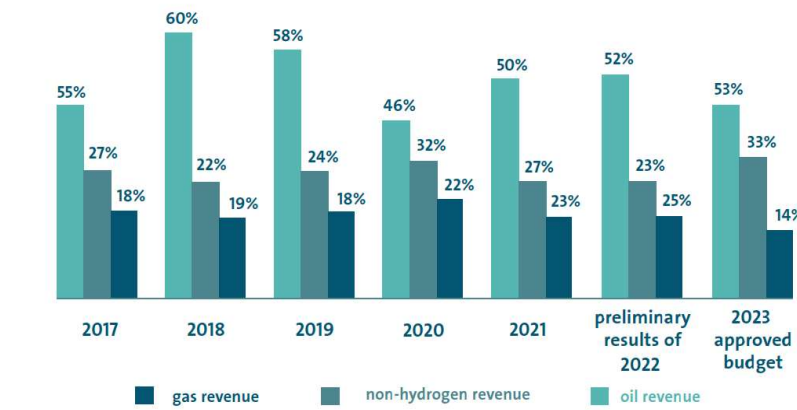
- 오만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261억 달러,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29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2023년에는 GDP의 3% 수준인 34억 달러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한편, 금번 예산안 추산시 사용된 유가 수준은 배럴당 55달러로 불안정한 국제유가, 인플레이션, 경제불황 전망 등을 감안함. 오만 정부는 2023년 일평균 원유 생산량 117만 5,000배럴을 기준으로 수익과 지출 전망 모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함.

※ 2022년 예산안: 배럴당 50달러에 기반하여 추정하였으며 2022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94달러

※ 2023년 평균 유가 전망치 : 美 에너지관리청 배럴당 92달러, EIU 배럴당 84달러

- 2023년 추산 재정수입에서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 및 14% 수준이며, 석유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 가스 부문 수입은 전년 대비 49% 감소(정부 지출비목에서 가스 조달 및 운송비용을 삭제하고 가스 판매 순수익만을 정부 수입에 반영. 실질 가스 판매 순수익은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러시아의 석유제품에 대한 제재 및 OPEC+의 감산 정책 등으로 IMF는 2023년 국제유가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평균 85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고유가 추세에 따른 재정수입 확대로 2023년 오만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1%대의 흑자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오만의 연도별 재정수입 비중



자료 : 오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4,002	-4,020	-12,307	-4,288	3,741
경상수지/GDP	-4.4	-4.6	-16.6	-4.9	3.3
상 품 수 지	18,084	18,229	7,638	16,542	27,797
상 품 수 출	41,730	38,685	33,483	44,591	66,456
상 품 수 입	23,646	20,457	25,845	28,049	38,659
외 환 보 유 액	17,141	16,374	14,676	18,578	16,346
총 외 채	66,704	72,066	72,816	79,887	76,883
총외채잔액/GDP	72.9	81.8	98.4	90.6	67.0
D.S.R.	15.6	13.5	21.7	23.0	23.8

자료: IMF, EIU

2022년 국제유가 상승 및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전환

- 2022년 석유 및 가스, 비에너지 부문 상품수출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는 GDP의 3.3%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에너지자원은 상품수출의 65%(석유 53%, 가스 1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됨.
- 오만의 무역 및 투자의 대부분은 GCC 회원국 및 중국에 의존적임. 특히,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약 80% 이상(총 수출의 45%)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및 GCC 회원국의 투자 감소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상존함.

※ 주요 기관의 2023년 경상수지 전망(GDP 대비): IMF 2.5%, IHS Markit 1.0%, Fitch Solutions 5.3%

2023년 국제유가 소폭 하락에도 비에너지 부문 수출 및 관광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 전망

- 2023년 국제유가 및 가스 가격 소폭 하락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수출이 GDP 대비 34.2%로 2022년(37.4%)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이는 코로나19 이전(GDP 대비 평균 26.3%)보다 높은 수치임. 비에너지 부문인 광산, 플라스틱(Sohar 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파크), 화학제품(Dhofar 플랜트) 등 상품 수출 증가세로 총수출은 GDP 대비 60.9% 수준을 기록하여 2022년(59.8%)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현재 코로나19 봉쇄 해제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비에너지 부문 투자 활성화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9년 수준인 약 200만 명으로 회복되었으며, 이들의 본국 앞 해외송금액 증가로 GDP 대비 9.1%의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예상됨.
- 한편, IHS Markit은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음.
-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관광 수요 회복 및 장기 개발계획인 VISION 2040 아래 2021~23년 기간 동안 39억 달러 규모의 관광 산업 부양책 등으로 서비스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외채상환능력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로 외채 조기 상환 및 외채잔액 점진적 감소

- **[2022년]** 오만은 2014년 이후 지속된 경상·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총 채무의 약 70%)에 주로 의존하여,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14년 25%에서 2020년 98.4%로 급증하였음. 한편, 2022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인한 정부 발행 채권의 환매 및 조기 상환의 결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7%로 감소하였음.
- 외채잔액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2022년 외채원리금 상환액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171.5억 달러 수준이며, D.S.R.은 2021년 23.0%에서 2022년 23.8%로 소폭 상승함.
-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4개월 수준인 점, 총외채의 29% 수준인 277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점, 유사시 GCC 회원국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만의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오만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에도 34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41억 달러 규모의 해외차입이 계획되어 있어 외채부담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2023년 재정적자 충당 계획 : 해외차입 65%, 국내차입 18%, 예비금 인출 17%
- 오만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2021년 46억 달러, 2022년 6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2023년 1월에는 약 13억 달러(5억 리알) 채권을 조기 상환하였음.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 주요 수출국의 수요 등 외부충격에 취약

- 오만의 기간산업인 석유 및 가스 부문은 2022년 총수출의 65%, 재정수입의 77%, GDP의 약 45%를 차지하여, 오만 경제는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과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오만은 국제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5년부터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어 쌍둥이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채무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GDP 대비 69.7%에 달하는 등 경제가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 또한, 오만의 수출 및 투자는 대부분 GCC 국가 및 중국에 치중되어 있음. 이 중 2022년 오만 총수출의 45%, 석유 수출의 약 80% 이상이 중국에 편중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큰 편임.

주요 GCC 국가 대비 짧은 지하자원 가채 연수로 경제구조 다각화 절실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오만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0.3%(54억 배럴) 수준이며, 가채연수*는 15.4년에 불과함.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 역시 전 세계 매장량의 0.4%(24억 배럴) 수준이며, 가채연수는 18년 수준임.

* 자원의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으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

[표 1] 주요 GCC 국가 원유·천연가스 현황

국명	원유		천연가스	
	비중 ^{주)}	가채연수	비중 ^{주)}	가채연수
오만	0.3%	15년	0.4%	18년
사우디아라비아	17.2%	73.6년	3.2%	53.7년
아랍에미리트	5.6%	73.1년	3.2%	107.1년
쿠웨이트	5.9%	103.2년	0.9%	113.2년
카타르	1.5%	38.1년	13.1%	144년

주) 세계 매장량 대비 해당국의 확인 매장량 비중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 한편, IMF는 오만 정부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로 2022년 균형재정 유가*를 배럴당 62.1달러(2021년 71.6달러)로 낮추었다고 확인함. 오만의 상대적으로 열위한 석유·가스 자원 보유량을 고려할 때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한 상황으로, 오만 정부는 VISION 2040 아래 비에너지 산업 부문 발전을 통해 2040년까지 비에너지 부문의 GDP 기여도를 90%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수준

※ 2022년 GCC 국가들의 균형재정 유가(달러/배럴) : 사우디아라비아 85.8, 아랍에미리트 55.1, 쿠웨이트 63.2, 카타르 44.7, 바레인 133.6

성장잠재력

지정학적·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

- 오만은 중립 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있어 유럽, 아프리카로도 수출이 용이하여 물류 허브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오만은 주변국의 환적항과는 달리 최근 개항한 두쿰(Duqm)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도 GCC 내 안정적인 물류 배송이 가능한 점, GCC 국가 중 바레인 외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점 등을 고려 시 주변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물류거점 및 주요 에너지 교역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이란과 오만 사이의 해협으로 GCC 국가는 동 해협을 통해 대부분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음. 보통 유조선은 이란의 영해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김.

- 아울러 VISION 2040 아래 경제구조 다각화의 일환으로 2040년까지 세계 10대 물류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 신규 도로 개통*(2021.12월), 아시아 및 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두쿰항 개항(2022.2월), 아랍에미리트와 걸프 철도 건설 사업 재개(아부다비-소하르, 2022.9월)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도로 개통으로 육로 이동시간 16시간 단축

[그림 4] GCC 역내 철도 네트워크 지도



자료: EIU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지속

- 오만은 중립 외교를 기반으로 한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15%) 및 자유로운 외환거래, 미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유지 등 우호적인 외국인투자 여건으로 2016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을 기록함.

* (2021년 기준) 법인세를 세계 평균 23.54% 및 OECD 평균 23.04%

[표 2] 주요 GCC 국가 FDI 유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국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오만	2,918	5,940	4,377	2,861	3,619
카타르	986	-2,186	-2,813	-2,434	-1,093
사우디아라비아	1,419	4,247	4,563	5,399	19,286
아랍에미리트	10,354	10,385	17,875	19,884	20,667
쿠웨이트	348	204	351	-142	198

자료: UNCTAD

성장잠재력

- 오만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 및 기술 유치 목적 등으로 일부 소상공 업종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였으며, 2022년 3월 무스카트 증권거래소는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오만 합자 주식회사의 주식 상장을 허용하는 등 투자조건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또한, 자국민 최저임금 수준 하향 조정*, 외국인 노동자 이직 제한 완화, 취업 비자 수수료 인하 등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교육 수준(고졸/대졸/석.박사)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최저임금을 고졸 수준으로 통일함.

- 한편, 오만은 2021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재생에너지, 제약 산업 관련 300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국* 및 분야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오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규모 : 영국(1위), 미국(2위), 아랍에미리트(3위)

정책성과

VISION 2040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 수소 중심 경제 수립, 고용문제 해결 등 추진

- 오만 정부는 현재 석유 및 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인 VISION 2040을 수립하여 중기 목표인 10차 5개년 개발계획*(Tanwea'a, 2021~2025)을 실행 중이며, 2025년부터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재정 지속가능성 개선 및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 중임.

* (목표) 생산 및 수출 기반을 확장하고 비에너지 부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부문 역량 강화 (핵심 분야) 전략 핵심산업으로 광업, 운송, 물류, 식료품, 관광 등이 있으며, 총 5년 간 소득세 면제

- 오만은 탈탄소화 및 석유 중심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2040년까지 수소 중심 경제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25GW)의 그린 수소 생산시설 건설을 포함한 약 450억 달러 규모의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무탄소 발전을 위한 연료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으며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

** 무탄소 연료이자 화석연료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석탄·석유·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의 터빈 및 보일러를 개조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성능은 유지한 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낼 수 있음.

- 또한, 미래 투자산업이자 국가 에너지 전략(2020~23년)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며, Manah 2개 지역에 각 5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2024년 상업운영 개시 계획), Al Wusta 및 Dhofar 지역에 각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음.
- 2040년까지 세계 10대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GCC 내 물류 배송이 가능한 두쿰항 개항(2022년), 사우디-오만 도로 개통(2021년), 카자엔 경제도시 내륙항 개항(2022년), 오만 소하르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잇는 철도 건설 재개(2022년) 등 관련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두쿰 정유시설 건설(2023년) 등 석유화학 산업 및 정유 산업, 2040년까지 총 16개의 산업도시* 건설 등 제조업 기반 육성 전략을 통해 산업다각화 전략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을 통해 자국민 고용 증대 및 실업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음.

* 2022.9월 기준 총 13개의 산업 도시 보유, 2021년 기준 오만 GDP의 제조업 비중은 약 9.7%

중기 긴축재정 정책 실행 및 부가가치세(VAT)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

- 오만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인한 채권 환매 및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정부채무를 감축시켰으며, 2022년에는 중기 긴축재정*(MTFP, 2020~2024)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으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VISION 2040에 따른 10차 5개년 개발계획(2021~2025) 아래 2020년 10월 도입되어 202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7% 수준으로 개선 목표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2019년 10월 국세청 설립, 2019년 6월부터 내국 소비세*(Excise Tax) 도입, 2021년 4월부터 GCC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세율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재정수입의 18% 수준인 15억 달러 규모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 세율 100% : 담배, 술, 돼지고기, 에너지드링크 / 세율 50% : 탄산음료

정책성과

- 한편, 재정건전화 개선을 위해 논의해온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도입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보류되었으며, 수도·전기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시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오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국왕의 권력 이양, 독립기구 설립 등을 통한 정책 효율성 개선 추구

- 세계은행은 공공·공무원 서비스, 정책 수립과 이행 및 이러한 자질을 높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4개 국가에 대해 정책효율성지수를 표준 정규분포(-2.5[Bad]~2.5[Good]) 형태로 매년 산출하고 있음. 오만은 2019년 0.3점, 2020년 0.1점, 2021년 -0.1점을 부여받아 글로벌 평균(2021년, -0.02)을 하회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함.

※ GCC 국가(2021년 기준): 아랍에미리트 1.4, 카타르 1.1, 바레인 0.7, 사우디아라비아 0.5, 쿠웨이트 0.0점

- 오만 정부는 2019년 이후 정책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존에 국왕이 겸직하던 재무 및 외교장관직, 중앙은행 총재직에 독립된 인사 임명, 중기 재정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기관(Tawazun) 설립, 석유개발공사(PDO*)의 지분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기구인 에너지개발기구(EDO) 설립, 오만투자청(OIA) 설립 등 각 역할에 맞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립을 통한 정책 효율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오만 국내의 석유·가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영기업으로 오만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0%를 관리 및 채굴

- 오만 정부는 분기별 GDP 및 연간 국제투자 통계 등 발표뿐만 아니라 2021년 처음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 발간에 동의하는 등 정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있음.
- * 정식명칭은 IMF 제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외환제도에 관한 의무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협의로 모든 회원국은 IMF와 협력하여 건전한 환율정책과 외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제8조(회원국의 일반의무) 상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협의의 성격이 강함.

정치안정

하이삼 국왕은 왕위 계승 1년 만에 장남 드히야진을 왕세자로 책봉하며 권력 기반 강화

- 오만은 국왕 중심의 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입법·사법 3권을 장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음.
- 약 50년 간 오만을 통치한 선왕인 카부스 국왕이 2020년 1월 서거한 뒤 그의 사촌이자 문화유산부 장관을 역임한 하이삼(Haitham bin Tariq Al-Said)이 선왕의 유언에 따라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하이삼 국왕은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왕족의 공개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하이삼 국왕은 즉위 1년 만인 2021년 1월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왕의 장자만 후계자로 지정토록 하여 왕위 계승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장남 드히야진(Theyazin bin Haitham)을 조기에 왕세자로 임명하며 권력을 공고히 함. IHS Markit은 이러한 정치환경과 최근의 왕위 계승 공고화 조치, 재정건전성 강화 등으로 오만의 체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분석하며 2022년 오만의 체제안정성지수*를 전년 대비 0.1점 개선된 1.7점으로 부여함.

*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하며, 0에 가까울수록 체제 안정성이 높음

사회안정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의 소수 온건 종파인 이바디파로 사회 안정 유지

- 오만 국민의 다수는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이바디파 무슬림임. 이바디파는 신자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여 수니파와 시아파에 비해 온건한 종파로 평가됨. 또한 타 종교에 비교적 관용적인 입장으로, 오만 정부는 자국 내에서 거주하는 비무슬림 외국인들을 위한 종교시설(가톨릭 성당, 불교 사찰, 힌두교 사원 등)의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온건 성향의 이바디파가 다수인 관계로 종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적어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만은 수니파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과 시아파 국가들(이란, 이라크 등) 간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

고유가로 인한 정부 투자지출 증가로 고용 창출 및 청년 실업률 감소, 단기적으로 사회 안정

- Fitch Solution은 2022년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 오만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오만 정부의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공공 부문 투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률 하락으로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시위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 해제 및 2022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오만의 경제환경 개선으로 국내 투자활동이 회복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오만의 청년 실업률이 2020년 13.6%에서 2022년 7.5%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또한, 오만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자 발급 비용 인상 등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인 오마니제이션(Omanization)을 시행 중임.

사회안정

202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13계단 하락한 69위를 기록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보고서에서 오만은 44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계단이나 하락함으로써 부패 문제의 개선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 GCC 국가 부패인식지수: 아랍에미리트(67점, 27위), 카타르(58점, 40위), 사우디아라비아(51점, 54위), 바레인(44점, 69위), 쿠웨이트(42점, 77위)

Moody's는 오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오만이 중간 수준의 부정적인 사회위험과 적절한 제도 및 지배구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환경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ESG 요소가 오만의 현재 등급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여,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¹⁾함.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경제·재정의존도로 환경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성장, 인구 증가 등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 에너지 집약적인 방법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점 등을 부담 요인으로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현재 및 향후 수십 년 동안 예상되는 급속한 인구 및 노동력 증가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도의 고용에 대한 자국민의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분야라고 지적함. 실업률을 통제하기 위한 자국민 고용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 과제이자 사회 위험을 변화시킬 중요한 동인이라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재정정책 효율성 개선, 비우호적인 사회·환경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점진적인 주권능력 개선 등을 반영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함.

1) Moody's Investors Service, Rating Action : Moody's upgrades Oman to Ba2, May 2023

국제관계

친서방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도 협력 강화

- 오만은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아랍 제국 중 가장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서방과의 군사협력 조약 또는 협정: 영국(1951년), 미국(1980년), 프랑스(1989년)
- 특히 미국은 오만과 자유무역협정(2005년 10월)을 체결한 최초의 비아랍 국가로 친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만 내 군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군사협정(1980년 6월)을 맺는 등 미국과의 군사 안보협력은 오만 방위력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음.
- 한편, 오만은 주요 석유 수출상대국인 중국(총 석유수출의 약 80% 점유)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에너지 공급, 물류망 거점의 하나로 오만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경제협력을 확대 중이며, 2018년 오만과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중국 투자회사 컨소시엄인 Oman Wanfang은 오만 정부가 지정한 두쿰 경제특구 산업단지 건설에 107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두쿰항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한 영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 오만 투자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국 해군 함정의 두쿰항 이용 협정을 체결하였고, 영국은 두쿰항의 물류항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및 영국 육군의 장기 주둔을 결정(2021.9월)하였음.
- EIU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오만이 양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하며, 유사시에 오만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국교 정상화로 지정학적 위험은 단기적 완화

- 2022년 11월 오만은 미국과의 첫 전략적 회담을 통해 이란 핵합의(JCPOA)를 둘러싼 미-이란 간의 중재자 역할을 지속 수행키로 하였음. 또한, 2016년 이후 예멘 내전에 개입하며 대립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란 갈등이 2023년 3월 오만과 중국의 중재 노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간의 국교 정상화 회담이 이루어졌음. 이를 계기로 중동 최대 지정학적 갈등이 단기적으로는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오만은 이러한 안정 국면을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이란과 기존의 무역·투자·외교 관계를 확대하여 역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이란 관계 정상화가 무산되거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오만의 재정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어 여타 GCC 회원국들(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동맹을 요구받아 중립 외교정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앞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22년 12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은 85억 4,980만 달러(단기 1억 8,880만 달러, 중장기 83억 6,100만 달러)로 이 중 정치적 리스크에 의한 연체금 잔액 및 채무재조정 이력이 없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22년 직전 등급 포함)	
OECD	5등급 (2023.01)	5등급 (2022.01)	6등급 (2021.01)
Moody's	Ba2 (2023.05)	Ba3 (2022.10)	Ba3 (2021.10)
Fitch	BB (2023.04)	BB (2022.08)	BB- (2021.12)

OECD는 오만의 국가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유지

-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출 증가와 재정수입 증대를 바탕으로 한 정부채무 조기 상환 및 오만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경상·재정수지가 흑자 전환되는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에너지자원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점, 석유·가스 자원의 여타 GCC 회원국 대비 짧은 가채연수로 인해 산업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OECD는 오만의 신용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하였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오만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일제히 소폭 상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3사는 2017년 이후 높은 에너지산업 의존도, 저유가로 인한 경상·재정수지 적자 심화로 인한 정부채무 급증 등으로 오만에 대해 투자부적격 등급을 부여하였음. 다만, 최근 오만의 거시경제 지표 개선, 정부채무 조기 상환 등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부적격 등급에 머물러 있음.
- Moody's는 2023년 5월 오만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하였음.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대로 정부채무가 감소하고 채무상환능력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결과임. 또한,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도 정부의 지출 통제 및 재정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여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로 유지하였음.

국제시장평가

- Fitch는 2023년 5월 오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이 2020년 68%에서 2022년 40%대로 대폭 감소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임. 한편, 청년층의 낮은 구직률은 오만의 공공재정 및 정치안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오만은 석유 및 가스 부문이 총수출의 68%, 재정수입의 77%,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재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여타 GCC 회원국 대비 지하자원 가채연수가 짧아 산업다각화가 시급함.
-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경상수지가 흑자 전환 하였으며,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4.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음. 다만, 재정수지가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함.
- 2015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쌍둥이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여 외채부담이 가중되었으나, 2022년 재정수지 흑자로 정부 발행 채권의 환매 및 조기 상환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상환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 62.9%에서 2022년 43.7%로 급감하여 외채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음.
- 한편, Moody's는 재정·경상수지 흑자 전환, 국가채무 감소 등으로 2023년 중 오만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